

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사항

□ 공 통

Q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상대평가/절대평가 중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?

-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 간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
Q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에게 입시 가산점이 있는지?

- 영재교육원 수료 시 별도의 입시 가산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.

Q 실기시험을 치를 때 일반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함께 시험을 치르는지?

- 특별전형 응시자끼리(시험 시간/장소 등이 분리되어) 시험을 보게 됩니다.

Q 모집인원(11명)을 다 선발할 수 없는지?

- 원(학과)별, 연도별 지원자 간 수준 편차가 있어 합격자가 고르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. 향후 모집인원인 11명 이내에서 선발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Q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시험 시 앞자리 배치 및 질문 내용을 미리 자료로 제공받는 등 배려가 가능한지?

-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별 필요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시험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Q 지원자격 증빙 서류 중 하나인 '병원 진단서' 제출을 면제하거나 발급 기준일(현 3개월 이내)을 조정해 줄 수 없는지?

- 특별전형인 만큼 지원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장애인 증명서 외에 대면심사에 준하는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나, 지원자격 확인에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
□ 음 악 원

0 콩쿠르 입상 경력 보유 시 입시 가산점이 주어지는지?

-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 시 본교 자체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기타 수상 경력 등은 점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.

0 1차(본 전형) 시험과목인 시창, 청음, 음악기초이론 시험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전형 학생들도 동일한 시험을 보는지?

-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이론 시험을 치르게 되나 실기시험 배점이 90%이며 특별전형 학생들끼리 상대평가를 통해 선발하게 되므로 실기 능력이 뛰어날 경우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.

0 실기시험 연주 시 전 악장을 끝까지 듣고 평가하는지?

- 실제 시험 시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1인당 5~6분 정도만 듣고 평가하게 되나 어떤 부분을 몇 분간 연주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 악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□ 연 극 원

0 [극작과] 운문/산문 형식이 아닌 희곡 형식을 별도로 공부하여야 하는지?

- 답안 서술방식은 소설 형식에 가까우며, 희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

□ 미 술 원

0 [조형예술과] 일반 미술대학과의 차이점 및 커리큘럼의 특성은?

- 학과(전공)별로 모집하여 졸업할 때까지 한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타 대학과 달리 본교 조형예술과는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합니다. 1-2학년에는 파운데이션이라 불리는 기초과정을 통해 다양한 미술 기초를 집중적으로 습득하고, 3-4학년에는 지도교수 1명의 스튜디오를 선택하여 개인교습을 받게 됩니다. 전자는 미국식 미술대학의 교육을, 후자는 유럽식 미술대학의 교육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현대 미술이 요구하는 예술가상에 걸맞은 다매체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.

0 포트폴리오 제작 시 자신 있는 분야(ex. 한국화) 위주로 준비해도 되는지?

- 본인이 관심 있고, 잘 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되지만 심사 위원에게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실제 시험에서 어떤 재료로 작업하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다양한 재료들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0 심층 실기시험의 평가기준은? 실기시험 시 어떤 재료로 작업하는지?

- 심층 실기시험은 상상력, 표현력,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3가지 주제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. 먼저 과제에 대한 강의(30분~1시간)가 있는 후 일반적인 그림 재료(연필, 목탄 등) 또는 만들기 재료(점토 등)를 지정해 배부합니다.

0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시험 이해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심층 실기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별도 전형을 구상하거나 입학 후 학습 지원이 가능한지?

- 심층 실기시험의 전형 방식 및 평가 기준이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합니다. 시행 초기인 관계로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전형 방식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- 입학 후에는 학습도우미, 생활도우미, 튜터링 제도를 통해 생활과 수업 면에서 1:1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도 먼저 입학한 학생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